

3.1절 제98주년 기념 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 이사장 양정섭 목사 외 3개 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사)세계개혁교회연합 총재 김권현 목사,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와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기립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3.1절 제98주년 기념연합예배를 지난 2월 27일(월)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세계개혁교회연합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사)세계개혁교회연합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예언, 예장 합동예장총회 총무 정현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중앙단의 찬양, 예장정통총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 사)세계개혁교회연합 총재 김권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목사는 사)3:1-6 말씀을 본문으로 '이방민족을 두신 목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어떠한 의식과 형식을 떠나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을 알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음을 알고, 선배들의 믿음을 좇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좇아 살면서 나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상들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살면서 우리도 우리 후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고 사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대를 이끌고 가는 동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장합동부총회장 서경숙 목사,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들 위해'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 이사 이영준 목사, '일본회개 추수와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해' 예장 기도총회 김성현 목사가 각각 기도한 후, 사)세계개혁교회연합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가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을 하고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인사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WCC에 속지 말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

도하고 크리스천들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전한 후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사로 3.1절 연합기념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금번 기념행사에서는 "3.1절 만세 운동과 기독교"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삼일절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역사적 배경, 삼일절 만세운동의 발단과 삼일 만세운동의 기독교 교회의 전개 과정과 역할, 그리고 교회의 피해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삼일 만세운동에 대하여 발표했다.

사설

3·1 기독교정신으로 국난극복

올해는 3.1절 98주년 되는 해다. 내 후년 백주년이 된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3·1운동 당시에 비해 할 또 한 번의 일대 국난에 직면하였다. 백 년 전 그 국난이 일제(日帝)라는 외세로부터 왔고, 민족 생존이 달린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국난은 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난으로서, 이 나라가 좌경 사회주의 망국의 길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기로에 선 또 하나의 민족적 국난이다.

좌경 사회주의 세력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도 공존할 수가 없다. 3·1운동 백주년을 두 해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3.1운동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 체제에 기생한 이 땅의 좌익·종북 세력은, 일부 언론이 의도적 왜곡보도를 감행함으로써 촉발시킨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을, 박 대통령의 통치 비리사건으로 확대 선동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전국적인 반정부, 반박 대통령 촛불집회로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탄핵으로 축출한 다음, 대통령선거를 앞당겨 이 나라의 국권을 송두리째 찬탈하려 획책하고 있다.

이제 3.13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거부간 결정 내려질 상황이다. 불법적인 대통령 탄핵에 항거하는 '태극기시위'와,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목표 아래 좌익·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촛불시위'로 인하여, 탄핵이 가결되면 부결되면 간에 이 나라는 극렬한 좌우대결상으로 내란과 유사한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 와중에서 대통령 선거전도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좌익·종북 세력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 나라의 국권을 장악하려고 날뛰게 될 것이다. 이를 단호히 제압하고 자유민주 정권을 기어코 수호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결판날 수밖에 없다.

백 년 전 1919년의 3.1운동은 기미년 3월 초하루 하루에 그친 독립 만세 항일 운동이 아니었다. 역사는 기록한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절화기)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의 주요 도시에서 독립선언서 가 배포되어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비폭력 투쟁을 특징으로 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월 10일을 전후로 한 2단계(도시 확산기)에 운동은 전국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상인과 노동자들도 철수와 파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월 중순 이후의 3단계(농촌 확산기)에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시위가 일상화되었다. 농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위의 규모도 커졌으며, 시위의 양상도 농민이와 주창 등으로 무장하면서 시위무스와 한병 주재소 등을 습격하는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의 시기에 전체 시위의 60% 이상이 일어날 정도로 운동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폭력투쟁으로 나타났다." (두산백과 인용)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화성 제암리, 천안 아우내, 광주 광안루, 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를 총칼로 학살하고 병화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유관순 열사 등 독립 만세 민족 투사들을 체포하여 기혹한 고문을 지행했다. 당시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0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다.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가 소각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 정신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3·1 독립 운동은 민족자주 독립의 정신이요,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넘실대는 우리 민족 독립의 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정신이었다.

만일 이 나라가 인권을 경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종북·좌익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3·1 독립정신과 제헌·건국 정신과 국체의 상실이다. 좌익·종북 세력의 난동으로 일부 국민들조차 사리 분별이 흐려지고 있는 이 절대적 국난에 처하여, 우리 국민 각자는 다시 한번 3·1 독립 구국운동 정신으로 무장하여, 선열들이 저 포착한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났듯이, 시즉생(時生)의 각오로 구국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

캄보디아 고위 관료, 사업가 36명 한국 첫 방문

현대차, 삼성전자 견학... 김해, 강릉, 김포목회사축구단과 친선경기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캄보디아 시니어 축구팀이 3월에 한국을 찾아 국내 목회사 축구단과 친선 경기를 갖고 민간교회는 물론 선교적 차원에서 교류를 갖는다.

지난 2월 25일 캄보디아에 본부를 둔 한국인도 차이나티렉센터(대표 이희선)는 심 보래 교육 청소년 체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교육부 및 내무부, 복지부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간 축구 리그에서 수년간 우수한 경력을 갖고 있는 축구 동호회팀으로 캄보디아 교육부 및 각 부처 산하 주

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3월 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강릉 예담글로벌중고등학교(이사장 원광기 목사, 교장 이상기)를 방문하여 대한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캄보디아 내에서 대한학교에 대한 정착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부산 동서대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찾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3년 국가 건립 이후 처음으로 동남아 대회(SEA GAMB)를 유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문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산사직월드컵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및 대회 유치 위원회 운영실태도 돌아볼 예정이다. 방문단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삼성전자 수원 공장 등을 차례로 견학하고 한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업 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예담글로벌 중고등학교를 비롯 부산의 동서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그리고 김해 교육청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살필 예정이다.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 e-mail mok2677@naver.com
0720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 22 다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셋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개강 :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